

# 휴가철 코로나19 재유행... 시민·보건당국 '긴장'

광주·전남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자가진단키트 8월 판매량 '급증' 여름 휴가철 겹쳐 확산될까 긴장 "마스크 착용·예방수칙 준수"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근 전국적으로 재확산 중인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환자가 급증하며 시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체·야외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 보건당국은 예방수칙 준수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협력 의료기관 9곳과 운영 중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에서 나타난 8월 1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9.7%로, 7월 2주차 검출률인 6.8% 보다 한 달 사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로, 질병관리청 표본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63명에 불과했던 코로나19 신규입원환자가 7월 말에는 465명으로 7.4배 이상 급증했다.

중식 1년여만에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에 시민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조란경(42)씨는 "오늘 약국에 파

스를 사러 갔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고령의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지인 중 한 명이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이리다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최근 다녀온 휴가지에서도 마스크를 쓴 관광객들이 종종 보였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다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2년 만에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된 윤성희(27)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지 1년도 지났는데 다시 감염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함께 모임을 했던 지인들이 대부분 걸린 것을 보면 감염성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느껴진다. 발열이나 통증 역시 2년 전 만큼이나 심각한 수준인데 정부나 질병청에서는 재확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엔데믹 이후 급증했던 자가검진키트의 판매량 역시 확진자수와 함께 급상승하는 추세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케어인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28일부터 3일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량은 전 주 대비 62.0% 증가한 5850개를 기록했다.

약국 업계 관계자는 "7월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판매량이 1~2개에 불과했던 자가검진키트가 7월 말부터 하루에 10개 이상씩 팔리고 있다"면서 "이런 달에도 점차 판매량이 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시

민들의 경각심과 주변에 확진자가 늘어난 것에 대한 반증으로 파악된다"고 해석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최근 급증한 이유로 호흡기 예방에 취약한 여름철 계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하계 휴

가지에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환경이다"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등 다양한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자발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등의 호

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등의 5대 예방수칙을 권고했다.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냉조끼로 더위 식히는 공사 작업자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6일 광주 북구청 신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냉조끼를 입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 나건호 기자

## '학생 폭행 의혹'... 광주 고교 체육부 코치 입건

광주의 한 고교 체육부 코치가 학생 선수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달 광주 모고등학교 체육부 코치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의 한 고교 체육부 코치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2월 고교 합동훈련 당시 선배 심부름으로 짬짬용 얼음 주머니를 가지고 오던 딸 B양을 폭행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가 의도적으로 훈련시 B양을 지도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시합에 배제하고 언어폭력을 가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 제출과 함께 광주시교육청에도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뒤에도 가해 직원과 피해 직원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중간 관리자의 행위는 2차 가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자체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설 직원이었던 진정인 A씨는 중간관리자 B씨에게 선임 직원에 의한 직

장 내 괴롭힘 피해와 인사 개입을 신고했으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B씨가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 등으로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가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했으며,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가해 직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행한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직원과의 공간을 분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해 직원이 선임이기도 하니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료애가 필요하다"며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이 밝혀졌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A씨가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